

##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rchiving of a Social Phenomenon through Neologism

김환(Kim, Hwan)\*\* · 임진희(Yim, Jin Hee)\*\*\*

1.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 2) 선행 연구
  - 3) 연구 방법
2. 신조어와 사회 현상의 정의
  - 1) 현상과 본질의 이해
  - 2) 사회 현상의 정의
  - 3) 신조어의 정의
3. 신조어 관련 기록의 수집 및 내용 분석
  - 1) 분석 대상 신조어 선정
  - 2) 신조어 관련 기록 유형 및 내용 분석
4.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구축 방안
  - 1) 신조어 아카이빙의 개념
  - 2) 사전과 아카이브의 비교 분석
5. 결론

\* 본 연구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제1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 투고일 : 2017년 4월 5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4월 5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4월 27일.

## 〈초록〉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동시에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시대에 따른 사회·문화의 변화와 발전과 함께 언어 또한 변하고 발전한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신조어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를 살펴보면 시대의 세태와 갈등, 사람들의 심리, 사상, 문화 등 사회 현상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와 함께 관련 기록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신조어 아카이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신조어 아카이빙이 기존에 존재하는 사전의 개념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통해 신조어 아카이빙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의 불평등 해소 등 국민 언어생활에 편의와 당대의 사회상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신조어 또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신조어, 신조어 아카이빙, 사회 현상 아카이빙**

## 〈Abstract〉

Language is an important medium for communication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and a mirror that reflects society as a whole. As society and culture change and develop over centuries, language follows suit. To keep up with the changes in the new era and express new concepts, countless new neologisms continue to appear. Recently, the use of neologisms is getting increasingly focused on social networking service and other Internet communication sites, which then spread rapidly through various media. If you look at the popular neologisms on the Internet, it implicitly reflects conflicts between the eras and the generations, people's psychology and ideology, and social phenomena

such as culture. The function of neologisms is not solely for the entertainment element of communication but also for criticizing social problems and their vital use as a search keyword. This study focuses on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gathering information and analyzing records about neologisms that reflect the social phenomenon in a certain period, and this will be labeled as “neologism archiving.” This study proposes a direc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neologism archive by comparing the currently existing neologism archiving system with the existing dictionary concept. In addition, this study serves as a reminder of the convenience and the contemporary social phenomena, such as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and the dissemination of inequality of information sharing. Lastly, this study aims to support experts with their research on neologisms for the social phenomenon.

**Keywords : Neologism, Neologism Archiving, Social Trend Archiving**

## 1.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를 살펴보면 혐오의 정서가 깔려있다. ‘극혐’, ‘남혐’, ‘여혐’ 등의 신조어 등장이 대표적인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혐오의 표현은 진화하여 자신의 나라를 비하하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게 된다.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조어이다. 이 말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역사 갤러리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단순히 조선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2015년에 들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이후 많은 이들이 현 시대

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한 뜻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에 공감하여 유행처럼 번졌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조어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동시에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과 함께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신조어는 '새로 생긴 말'로 정의된다. 신조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 언어학에서 다른 신조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조어는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로 기존에 있던 말이라도 새로운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유행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데 이후 일만어휘로서 표준어가 되거나 사용 빈도가 줄어 사어가 된다. 이를 통해 신조어에 대한 개념을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로 일시적으로 유행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신조어에 관한 언어학적 통계 조사나 사회학적 연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신조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조어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인터넷 상에서 신조어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기록 관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대중매체의 발달로 신조어의 유행과 확산 속도는 빨라졌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뉴스기사 뿐만 아니라 음악, 드라마, 영화, 만화 등 문화콘텐츠 속에서도 신조어를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조어와 함께 관련 기록들의 아카이빙을 통해 사회적 현상을 들여다보기 위한 '신조어 아카이빙'의 구축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정보 공유의 불평등 해소 등 국민 언어생활에 편의와 신조어가 유행하던 시대의 사회상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

들의 연구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2) 선행 연구

국가기관 소속의 국립국어원은 매년 등장하는 신조어의 조사를 통해 통계를 분석하고 목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조어 연구에 대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조어의 정의와 특성, 유형별 통계 분석, 수집 방법과 원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조어와 사회 현상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언어학,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연구로는 유호, Gui Dan, 진주연, 박기천 등이 있으며 이들은 신조어에 반영된 사회 현상을 유형을 분류하여 의미를 분석하였다.

유호(2014)는 한국과 중국의 생활분야에서 나타나는 신조어 비교를 통해 사회문화현상을 분석한 연구로 사회언어학 관점에서 주제나 영역별 신조어 유형을 분류하였다. GUI DAN(2015)은 한국과 중국의 신조어 비교를 통해 신조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어종별·주제별 분포양상과 생성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진주연(2003)은 현대 중국어 신조어 연구를 통해 신조어에 반영된 사회 현상을 정치·경제 분야, 사회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별로 연구하였다. 박기천(2013)은 현대 중국어 문화콘텐츠 신조어 연구를 통해 신조어 생성 유형을 조사하여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문화콘텐츠 속에서 나타나는 신조어 현상을 영화, 방송, 음악, 공연, 국제행사, 게임, 애니메이션 등 유형을 나누어 연구하였다. 위 논문들은 신조어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신조어의 사용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구축 방안을 위해 기록 관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아카이빙 방안과 수집 정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이형수(2012)는 대중음악가 아카이빙 방안 : 김광석을 중심으로를 통해 대중음악가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지 않고,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에 대한 각 개념의 정의와 특징을 통해서 대중음악가 아카이빙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카이빙은 도큐멘테이션과 기록화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을 제시 하고, 아카이빙과 기록화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여 정의하였다. 신윤화(2006)는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 김달진문학관을 사례로를 통해 수집 정책을 세우는 것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며 방법론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용하여 생산된 당시의 시대적식이 반영된 산물인 기록은 사회과정의 분석고가 가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민국(2012)은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마을 아카이빙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형 아카이빙 방법론에 대해 제시하였다. 마을 아카이빙의 기록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들을 주체로 기록관리 전문가 는 이들을 지원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밝히고 있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로컬리티 관점에서의 참여형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과 참여의 유형과 방식에 대해 제시 하였다. 참여형 아카이브를 수집기관과 이용자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재나, 김용, 오효정, 김건(2015)은 웹툰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웹툰 아카이브의 설계 및 구축 방안에서 국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웹툰의 산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조어가 시대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키워드로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신조어와 함께

관련 기록들의 아카이빙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신조어와 사회현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각 개념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신조어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 현상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현재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신조어 중 ‘헬조선’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 관련 기록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매체의 유형으로는 인터넷 뉴스기사, 문화콘텐츠, 연구보고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인터넷 뉴스기사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일간지 및 신문 기사와 뉴스/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색을 위해 네이버 뉴스 검색을 활용하였다. 둘째, 문화콘텐츠의 범위로는 음악, 드라마, 영화, 문학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각 콘텐츠의 내용 속에서 신조어를 검색하기 위하여 네이버 검색을 기반으로 멜론, 교보문고 등의 전문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드라마와 영화의 경우 내용 속에서 직접적인 신조어의 활용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문 기사와 블로그 등에서 함께 언급된 2차적 정보를 통해 접근하였다. 셋째, 연구보고서는 학술자료 및 연구보고서 등을 포함하며, 네이버 전문정보 검색 사이트와 디비피아, riss, kiss 등의 전문 사이트들을 활용하였다.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위해 유사 사례로 위키 형식의 사전 사이트인 ‘우리말샘’과 ‘나무위키’를 분석하여 신조어 아카이빙의 개념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신조어와 사회 현상의 정의

### 1) 현상과 본질의 이해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을 위해 먼저 현상과 본질의 개념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현상과 본질의 개념을 설명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철학적 견해를 참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질이란 일반적으로 고유한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질의 사전적 의미로는 “첫째,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둘째,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을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본질을 뜻하는 라틴어 ‘essentia’는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ousia’에서 유래되었다. 본질은 내재적인 성질로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의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철학사전」에 따르면 내재적으로 존재하지만 인간이 직접적으로 지각하거나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존과는 대립하며, 성질과 구별된다. 또한 “현재 존재하여 나타나는 것에 대한, 즉 현상에 대한 본질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본질은 이렇게 여러 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우연적인 성질도 가지면서 개체로서 현재 존재하는 사물, 즉 현상은 사실상 그 밖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 중에 그 사물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즉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유물론의 견해이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이는 본질은 현상으로 나타나며,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 인식된다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현상은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뜻하며, 사전적 정의로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를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철학용어로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관찰되고 확인된 모든 사실로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둘째, 의식에 현전하여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말끔히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한다. 후설의 현상학에서 말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의미의 현상이며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본체 또는 본질과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헤겔사전」에 따르면 현상은 외면적이고 본질은 내면적인 것으로 인간이 직접 지각할 수 없는 본질의 구체적 모습을 가진 것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며, 본질은 현상 속에 포함된 것이



라 설명하고 있다(가토 히사타케 2009).

현상과 본질에 대한 철학적 개념과 학자들의 견해에서 알 수 있듯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질은 현상을 통해 드러나며, 현상을 통해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상은 외형적이고 가변적이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며, 본질은 내재적이고 불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질이 비추는 것에 따라 현상은 변화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생성되는 신조어와 함께 관련 기록들을 아카이빙 하는 것은 신조어가 반영하고 있는 당대의 사회 현상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 현상의 정의

현상은 크게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으로 구분된다. 이 두 현상을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사회 현상의 사전적 정의로는 “첫째, 경제, 도덕, 법률, 예술, 종교 따위와 같이 인간의 사회 생활에 의하여 생기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 둘째, 사회적 사실(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사회 속에서 인간의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현상과 사실을 사회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사회 현상에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가치관, 의지, 행동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사회 속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사회성을 가진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만큼 인간의 언어활동 속에서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신조어의 일시적인 유행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 현상은 인간의 영향이 미치긴 하나 결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사회 현상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인과

관계를 적용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하려 한다.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어떤 학자들의 주장이 현실 세계에 반영되면서 학자가 주장한 법칙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법칙 자체를 바꾸게도 할 수 있다. 즉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 현상에는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함축되어 있기에, 그러한 연구하는 인간 역시 그 사회 현상의 일부로서 사회 현상의 전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구정화 외 2011). 현대의 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생활이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네트워크 사회가 구축되어 있다. 이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은 데이터화 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신조어의 정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거나 의미가 변화거나 사라지는 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 사물 등의 등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말을 신조어라고 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을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신조어란 새로 생긴 말을 의미하며 넓게는 이미 존재하는 말이라도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까지 일컫는다. 신조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사전」에서는 “신어와 같은 말로 새로 생긴 말을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조어에는 새로운 단어, 또는 존재하고 있던 단어지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을 경우, 그 외에도 외국어 또는 전문분야, 특수한 사회집단의 용어로부터의 차용어, 그리고 과거에 사용되었다가 소멸된 뒤 다시 새로이 쓰이기 시작한 단어 등이 포함된다”(언어학사전), “신조어 또는 신어는 새로 생겨난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를 가리킨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신조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신조어 중 일부는 표준어로 인정되어 이후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지만, 유행이 지나면 사용되지 않아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위키백과).

신조어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남기심(1983)은 “새말을 이미 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뜻이 주어진 것을 통틀어 일컬으며,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포함 된다”고 하였다. 김광해(1993)는 “언어 사회의 물질적 사회적 변동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을 때 이를 표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휘”라고 정의하였다. 정미란(2006)은 “신조어는 새롭다라는 특징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안정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정의하였다. 최윤경(2009)은 “신조어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상당히 광범위한 공간에서 사용되어 일정 시간 동안 출현·존재하는 속성을 가진 낱말이다.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신어와 새로운 의미인 신의를 포괄한다”고 하였다.

신조어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신조어는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로 기존에 있던 말이라도 새로운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둘째,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유행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데 이후 일반어휘로서 표준어가 되거나 사용빈도가 줄어 사어가 된다. 이를 통해 신조어에 대한 개념을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로 일시적으로 유행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 3. 신조어 관련 기록의 내용 분석

#### 1) 분석 대상 신조어 선정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을 위해 신조어를 분석하고 선

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해마다 생성되고 사라지는 수많은 신조어들 중 사회적 현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신조어들을 찾아 목록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립국어원에서 매년 행하고 있는 신어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관 소속의 국립국어원은 매년 등장하는 신조어의 조사를 통해 통계를 분석하고 목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신조어 연구에 대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조어의 정의와 특성, 유형별 통계 분석, 수집 방법과 원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헬조선’을 분석 대상 신조어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헬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2014년 후반 처음 생긴 신조어이다. 둘째, 헬조선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역사 갤러리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단순히 조선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2015년에 들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의미로 변화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며 유행하고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헬조선은 앞서 정의했던 신조어의 개념과 특성에 적합하며,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 시에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신조어 관련 기록 유형 및 내용 분석

신조어 관련 기록들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선정하였던 신조어들의 검색을 통해 결과를 조사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뉴스와 신문기사이다.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를 통해 ‘헬조선’과 관련된 신문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약 1만건이 넘는 기사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결과로 언론사들 간의 중복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문 기사를 통해 신조어 사용에 대한 사례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와 사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스는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시사 프로그램은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며 그 사건이 가져오는 파장과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 등 분석을 보여 준다. 따라서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신조어에 대한 언급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문제와 사실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음악, 드라마, 영화, 시, 소설 등의 문화콘텐츠이다. 국내 가수들 중에서 노래 제목이나 가사 속에 ‘헬조선’과 관련된 음악들을 찾아보았다. 국내 음악사이트 멜론에서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헬조선’을 사용하고 있는 음악들을 찾아보면 중복을 제외한 19건의 음악이 검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노래들은 모두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는 힙합 음악이다. 힙합은 경직된 시선으로 무장한 기성세대와 정형화한 답만을 강요하는 사회에 신음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탈출구이자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의 현실과 분노를 대표하는 음악 장르이다. 힙합 가수들은 자기만의 이야기로 사회의 현실을 표현하고 듣는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표 1〉 멜론 사이트에서 ‘헬조선’ 관련 음악 목록(검색일자: 2016.11.27)

장르	가수명	제목	발매일
랩/힙합	일통	헬조선	2015.11.10
랩/힙합	일레븐	시대유감	2015.12.29
랩/힙합	만수	NO산타	2016.01.22
랩/힙합	제리케이	Louder	2016.03.15
랩/힙합	데드피	Dark Soul	2016.06.08
랩/힙합	Wona Oneal, 4PN\$, Maze	Monkey	2016.07.12
랩/힙합	피존	Super Power	2016.07.29
랩/힙합	스윗보이	말이많아너	2016.09.01

랩/힙합	NUNNSEOP	CANDY	2016.07.27
랩/힙합	장문복	책	2016.11.17
랩/힙합	더블캐슬	오만원	2016.11.17
랩/힙합	YDG	병신년	2016.11.18
랩/힙합	아이삭 스쿼브	불합격	2016.11.23
랩/힙합	1K	Siri	2016.11.24
기타	4ROSE	블랙구라이데이	2015.10.13
기타	4ROSE	처음처럼	2015.12.15
기타	4ROSE	딸랑딸랑	2016.07.12
락	쓰레기스트	헬조선	2016.08.26
일렉트로닉	오빳	반도의 흔한 E.D.M	2016.09.01

위의 목록 중 헤비 메탈 밴드인 쓰레기스트이의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쓰레기스트는 서민들에게는 헬조선, 기득권자들에게는 헤븐조선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노래 가사에 대한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직설적이며, 과격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여 비판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쓰레기스트의 헬조선

눈을 떠라 이 멍청아 지옥문 열렸다  
 시발점이 천양지차 승패는 갈렸다  
 졸업하면 뭐할래 백수에 빗쟁이  
 결혼식은 때려쳐라 풀리면 딸딸이  
 헬헬헬 헬조선 헬헬헬 지옥불반도  
 헬헬헬 헬조선 헬헬헬 지옥불반도  
 일어나라 이 멍청아 주위를 둘러봐  
 친일파는 금수저 백성은 흙수저  
 늙어봐라 더 좆웬다 폐지를 모아라  
 탐골공원 무료급식 뛰어가 줄서라  
 헬헬헬 헬조선 헬헬헬 지옥불반도  
 헬헬헬 헬조선 헬헬헬 지옥불반도

어디 개 돼지새끼들이 말이야  
주제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여긴 존나 씨발 헬조선이야  
헬헬헬 헬조선 헬헬헬 헬조선  
헬헬헬 헬조선 헬헬헬 미래는 없어

\* 출처 : 멜론(검색일: 2016.11.27. <http://www.melon.com/song/detail.htm?songId=9618543>)

쓰레기스트는 강력한 락 사운드와 함께 헬조선, 지옥불반도 등 거친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의 현실을 시원하게 비판해주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짧은 가사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듣는 이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이후 ‘헬조선’과 상반되는 뜻의 ‘해븐조선’이라는 음악을 발표하며 사회적 구조 속에서 부조리한 대우를 받는 집단과 이득을 받는 집단을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음악에서의 신조어 사용은 짧고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여 듣는 이들이 쉽게 공감하도록 돕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제목이나 대사 속에서 신조어의 직접적인 언급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부차적으로 뉴스기사,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신조어 현상과 연관지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영화 「부산행」

「부산행」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에서 일어나는 재난영화로 한정된 공간에서 승객 모두가 생존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이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사고가 아닌 좀비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에서 좀비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본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좀비는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특징이 있는데 아무리 먹

어도 그들은 결코 허기를 채우진 못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상품의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좀비에게 물리면 좀비가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은 쉽게 전염된다. 현존하는 모든 재난이 곧 좀비이며 좀비 영화는 사람들이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이 좀비가 될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영화 속 정부는 허위 사실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과 함께 관객들이 보는 이미지는 악화되가는 서울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설정으로 정부의 무능력과 거짓말을 비꼬면서 관객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

#### 영화 「터널」

「터널」은 무너진 터널 속에서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다루는 내용의 영화이다.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며 반성하게 한다. 사고 대책반의 구조대장인 대경은 무너진 터널에 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은 동원하지만 비리공사로 인한 문제로 구조작업은 시간만 지체하게 된다. 거기가 구조작업이 진행될수록 인근 터널 완공에 차질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 정수는 생존과 구조에 대한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구조작업의 진행이 지체되며 다른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은 비난을 받게 된다. 터널 작업의 부실공사로 한 시민이 사고를 당했지만 비리로 얼룩진 사회에서 그의 생명은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된다. 이처럼 영화에서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와 언론의 지나친 선정 보도 등 현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붕괴되는 터널을 통해 무너져가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부산행」과 「터널」은 국가와 개인에게 재난이 발생한 뒤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리고 있으며, 이 영화들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게 만들며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안전 불감증 대한민국, 정부와 담당자들의 무책임, 특종만 찾고 진실을 감추는 언론과 미디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드라마와 영화는 그 시대의 정서와 사회 현상을 담고 있어 신조어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직접적인 신조어의 활용을 찾아볼 수 없더라도 신조어가 반영하고 있는 현상과 연관 지어 바라보는 이들의 2차적인 기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검색해 보면 사회(사회학, 사회복지, 정치/외교, 행정/정책) 41건, 잡지(인문/사회/종교, 어학/교육 24건, 문예/교양지, 여성/패션/리빙, 자연/공학, 예술/대중문화, 취미/여행, 외국잡지), 경제/경영(경제, 경영, 마케팅/세일즈, 창업/취업, 재테크/투자) 19건, 소설 13건, 시/에세이(한국시, 성공 에세이, 삶의 지혜/명언) 14건, 자기계발(성고/처세, 자기능력계발) 9건, 인문(심리, 교육학, 철학) 3건, 역사/문화(한국사, 역사/문화일반) 3건, 만화 3건, 종교(기독교, 기타) 1건, 청소년, 취업/수험서 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조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학술 연구 자료이다. 네이버 전문정보에서 헬조선을 키워드로 학술자료들을 검색해 보았다.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발표된 자료들에 한해 네이버 전문정보 학술자료의 항목에서 검색 시 21건이 검색된다. 동향 및 연구보고서의 항목에서 검색 시 16건이 검색된다. 주제별로 세부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문화, 문학, 역사, 종교, 예술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논문과 연구보고서 등 전문자료 속에서 사회 비판적 신조어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나타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신조어의 등장과 사용시기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신조어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학술 자료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분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조어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SNS, 블로그,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및 답글 등의 웹사이트들과 신조어와 관련된 이미지, 영상 등 디지털 객체들이 존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4.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구축 방안

##### 1) 신조어 아카이빙의 개념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구축 방안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를 ‘신조어 아카이빙’이라 정의하고 그 개념에 대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아카이빙이란 파일을 보관용이나 기타 목적으로 한곳에 모아둔 것을 의미한다. 이형수(2012)는 아카이빙을 “도큐멘테이션과 기록화를 모두 포괄하면서 수집·생산한 기록의 관리와 이용까지를 의미 한다”라고 정의 하였다. 신조어 아카이빙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과 함께 시대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들을 수집·분석하여 신조어의 뜻과 함께 관련 기록들의 수집·관리·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생산된 당시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란 “기록은 생산된 당시의 시대의식이 반영된 산물이기 때문에 기록의 배후에 있는 사회과정의 분석과 가치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방법론”(신윤화 2007)을 말한다. 따라서 신조어 아카이빙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신조어 사용의 용례를 뿐만 아니라 그 현상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당시의 시대적 배경까지 아카이빙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사전과 아카이브의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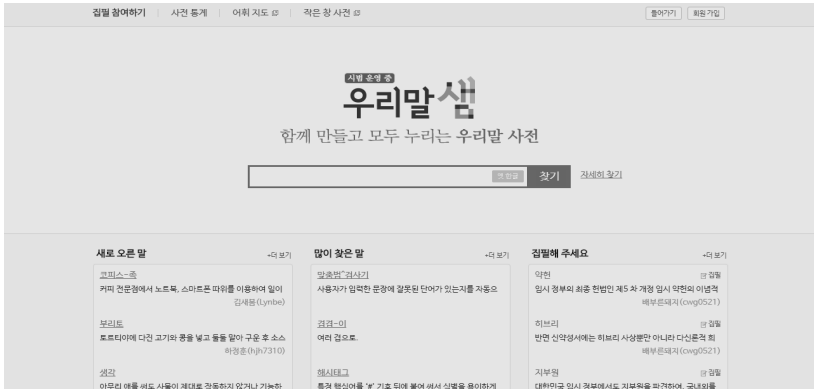
신조어 아카이빙에 대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국립국어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우리말샘’과 ‘나무위키’를 분석하였다. 우리말샘과 나무위키는 위키 형식의 웹사이트로 설립 배경이나 목적 등 신조어 아카이빙의 사례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신조어에 대한 개념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이와 같은 위키 형식의 웹사이트가 전부이다. 이 두 웹사이트는 신조어에 대한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목차를 구성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영상 등의 자료를 첨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아카이빙의 개념과 일부 상통한다. 따라서 신조어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사례 조사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1)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국립국어원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우리말샘은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국어 사전으로 교육·언론 등 공적 언어생활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말샘의 특징으로는 첫째,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 규격을 수용하여 국내외 기관과의 정보 교류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휴대용 기기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정보의 2차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기반 환경을 적용하여 일반 사용자들도 주체가 되어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어, 방언, 전문 용어 등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 자료를 수록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어휘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말샘 홈페이지 화면(검색일: 2016.11.28. <http://opendict.korean.go.kr/>)



신조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용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용의 구성을 분류하고 있다. 첫째, 비슷한말, 반대말, 참고 어휘, 다의어, 상위어, 하위어 등의 관련 어휘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시기별로 형태나 의미가 변하는 어휘의 변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사진·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말샘은 국가기관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국제 표준 규격을 준용하는 등 관련 지침,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둘째, 전문가들의 참여로 편집된 내용의 감수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 셋째, 자유 저작권 정책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첫째,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표현에 대한 어휘들의 제한이 있다. 둘째, 아직 시범 운영 단계로 사용자 참여도가 낮고, 등록된 정보가 매우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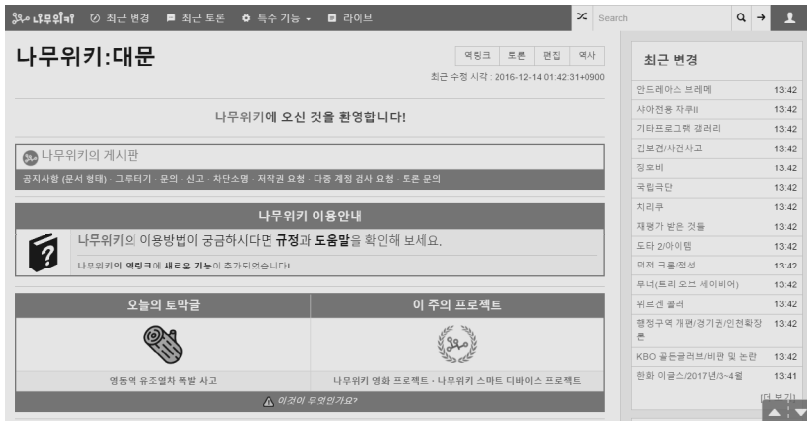
## (2) 한국어 위키 사이트 '나무위키'

나무위키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이 만든 한국어 위키 사이트이다. 나무

위키는 개발자가 아닌 운영자, 관리자, 중재자, 호민관으로 구성된 운영진이 운영하고 있다. 운영진은 전체 이용자들 중에 선출되기 때문에 나무위키의 운영 주체는 단순히 사용자들에 의해 운영·관리 되고 있다. 나무위키는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개설된 위키 사이트로,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학문과 서브컬처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무위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련 사진·영상·뉴스기사와 사건 사고 등에 대한 기술로 신조어에 대한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나무위키 홈페이지 화면(검색일: 2016.11.28. <https://namu.wiki>)



나무위키의 장점으로는 첫째, 일반 사용자들의 참여가 쉽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자 편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많고, 기존 매체나 사전에서 다루지 않는 요소들이 제공된다. 단점은 사용자들의 편향적인 내용의 서술로 인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 사용자들 간의 중립적인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많은 문제와 논란이 발생한다.

사전은 인간의 지식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만든 정보의 집합체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종이사전은 무의미해졌고, PC와 모바일을 통한 전자사전으로 발전하였다. 단순히 종이에 있던 정보를 그대로 웹으로 옮겨온 전자사전에서 체제와 형식을 바꾸고 종이 사전에서 구현할 수 없었던 기능들이 추가되어 현재의 웹 사전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의 진화된 웹사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말샘과, 나무위키는 사전과 아카이빙의 중간 단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조어 아카이빙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조어 아카이빙은 사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과 비교하여 신조어 아카이빙이 가지는 대표적인 차이는 첫째, 신조어를 하나의 시리즈계층으로 설정하여 관련 기록들을 분류하고 기술하여 단어의 개념만이 아닌 신조어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의 메타데이터를 설정을 통한 수집·관리·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사전의 일차원적인 정보 제공과 달리 검색 도구를 통한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차원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수집 정책

수집정책이란 기록학용서사전에서는 “보존 기록관에서의 기록 평가·선별 절차의 토대로서, 수집을 통한 기록화의 목표 및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천명된 사실을 의미”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집 정책에는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의 범위 및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수집 지침 및 제한 사항, 타 기록관이나 기록 소장자와의 협력 방향 등이 포함 된다”라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 함께 살펴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 저작권 정책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신조어 아카이빙의 효

유효적 운영을 위해 수집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 및 사용자 협력

매년 수많은 신조어가 생성되고 사라지는데 이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수집·평가·선별·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을 주체로 기록전문가 및 사용자 참여형 기반의 수집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조어 아카이빙의 운영주체는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을 수집 주체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간의 약속이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신조어와 같이 새로 생긴 말에 대한 개념은 국립국어원의 관련 지침과 규정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년 새로 생기는 신조어들을 수집·분석하여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조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립국어원의 연구는 많은 이들이 신조어 연구를 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써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우리말샘을 기반으로 아카이빙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사용자 참여형 아카이빙을 제안하는 이유로는 첫째, 매일 수많은 신조어가 생성되고 사라지는데다가 그와 관련된 기록들의 양이 많고 범위가 다양하다. 둘째, 신조어의 정의와 특성, 사용 형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체가 바로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한 언어권의 구성원으로 신조어에 대한 실질적 사용 주체이며, 그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들이다. 국가기관의 지침과 규정에 따른 사용자 참여형 기반의 수집정책은 신뢰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록관리 전문가의 역할은 협력 주체들 간의 논리적인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조어 아카이빙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용자들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수집·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아카이빙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 도구를 제공하여 한다.

신조어 아카이빙이 국민들에게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의 견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신조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범위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식과 가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기록관리 전문가, 사진 편찬 전문가, 언론 전문가, 언어학 전문가, 사회학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3〉 자문 위원회 구성



## (2) 수집의 범위

앞서 다루었던 신조어 아카이빙의 특성상 수집하려는 기록의 출처와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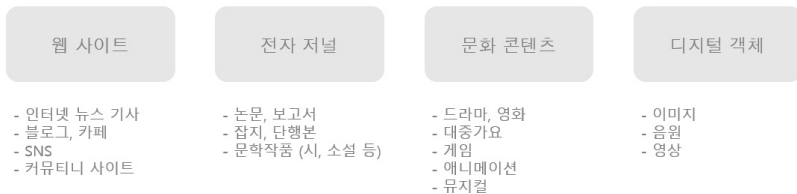


류가 다양하고, 신조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신조어에 대한 의미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수집 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수집 범위에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에 대한 분석 및 선정과 신조어를 활용하고 있는 기록들의 유형 분석 및 선별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신조어를 분석하여 목록을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 대상 후보들을 선정하여 한다. 이에 대한 원칙과 방법으로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신어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 조사 대상 매체와 검색 기간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신조어의 개념을 설정하여 추출할 어휘의 선정 기준을 설정한다. 이후 수집 도구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수집 방식을 통해 신조어 후보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화가 완성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시대의 사회상을 아카이빙을 위한 가치 있는 신조어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조어의 선정하였다면 다음으로 선정된 수집 대상 신조어들을 검색하여 나타나는 매체 유형을 파악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신조어 현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매체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웹 사이트, 전자 저널, 문화 콘텐츠, 기타 디지털 객체 등이 있다.

〈그림 4〉 신조어 수집을 위한 매체 유형



신조어의 사용이 가장 활발하고 많이 나타나는 매체로 신문기사,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SNS 등의 웹 사이트이다. 이 매체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신문기사의 경우 출처가 확실하여 사전의 기본적인 용례로 사용될 만큼 필수적으로 수집해야 할 대상들이다. 전자 저널 형태의 논문, 보고서, 서적 등은 신조어 현상에 관한 전문가들의 생각과 지식이 담겨 있으며, 2차적으로 연구나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데 중요한 기록이다. 문화콘텐츠 기록은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창작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디지털 객체로 존재하는 이미지, 음원, 동영상 등의 기록들이 있다.

## 5. 결론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에 신조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신조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없다. 신조어는 인간과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이를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인정하고 신조어 사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시대의 사회상을 기억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써 신조어가 가지는 가치와 역할을 살펴보고,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을 위해 신조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카이빙 대상으로 신조어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여 신조어의 개념과 특성과 함께 사회 현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검색 키워드로 대표 신조어를 선정하여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신조어를 활용하고 있는 기록들을 찾아보고 그 의미와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조어의 유행과 함께 나타나는 관련 기록들을 대상으로 수집·관리·서비스 하여 시대의 사회상을 기록화 하는 개념으로 신조어 아카이빙을 제

안하였다. 신조어 아카이빙의 유사 사례로 위키 형식의 웹 사전 사이트인 우리말샘과 나무위키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조어 아카이빙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신조어 아카이빙은 사전의 진화된 형태로 개념 정의만이 아닌 사회 현상을 정의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조어 아카이빙의 수집정책으로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을 운영 주체로 기록관리 전문가와 사용자들의 협력을 통한 참여형 아카이빙이 이루어질 것과 수집 범위와 대상 매체들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신조어의 특성상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의미차이가 있고,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개념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신조어 아카이빙의 관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신조어 아카이빙을 통한 사회의 기억과 현상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가토 히사타케. 1992. 『ヘーゲル事典』. (이신철 역. 2009. 『헤겔사전』. 서울: 도서출판 b).
- 구정화, 신동민, 박새로미. 2011.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서울: 해냄.
- 김관해. 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김명자. 2013. 중국어 신조어 규범 문제에 관한 연구. 『중국어문학』, 64, 197-226.
- 김민국. 2012.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 박기천. 2013. 현대 중국어 문화콘텐츠 신조어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신윤화. 2007.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 김달진문학관을 사례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 유호. 2013. 한·중 생활분야 신조어 비교연구: 사회·문화적 양상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재나, 김용, 오효정, 김진. 2015. 웹툰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123-149.
- 이형수. 2012. 대중음악가 아카이빙 방안: 김광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 정미란. 2006. 『현대 중국어 신조어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주연. 2003. 현대 중국어 신조어 연구: 1990년 이후 사회현상과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 최윤경. 2009. 『중국개혁개방과 신오어』. 서울: 제이앤씨.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림학사. 2007.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서울: 청서.
- Gui Dan. 2016. 한·중 신조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